



한덕수 국무총리, 오스트리아 방문 (5.8-5.9)

- 한-오스트리아 총리 회담, 오스트리아 경제인 간담회, 지상사 대표 간담회, 동포 간담회, 한국문화원 개원식, 국제기구(IAEA, CTBTO) 사무총장 면담

- 한덕수 국무총리는 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의 초청으로 5.8.(월)~5.9.(화)간 오스트리아를 공식방문하였다.
- 한 총리는 5.8.(월) 「칼 네함머」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고 △ 양국관계 △ 분야별 협력 △ 국제무대 협력 △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류 개시 130주년을 맞아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의 모멘텀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고위 인사교류를 지속하고 정치, 경제, 문화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 특히 한 총리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기후변화, 공급망 구축 등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자고 하였다.
 - 아울러, 한 총리는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공조해 왔는데, 앞으로도 주요한 국제기구 선거, 다자 협의체내 논의에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네함머 총리는 반도체,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정부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양 총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한 총리는 금번 오스트리아 공식 방문 계기에 오스트리아 경제인 간담회, 지상사 대표 간담회, 동포 간담회, 한국 문화원 개원식 일정을 가졌다.
 - 한 총리는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장관, 상공회의소 소장, 한국과 협력 중인 오스트리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 경제의 유사성과 그간의 협력에 기반하여 앞으로 미래 첨단 산업에서의 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양국의 높은 기술 수준을 감안하여 혁신, R&D,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오스트리아에 주재하고 있는 지상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에서는 한-오 관계 증진을 위한 우리 진출 기업들의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활동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 오스트리아에는 LG전자, 삼성전자,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등 총20여개사 진출
 - 한편, 한 총리는 오스트리아 동포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노고를 평가하고, 동포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하였으며, 재외동포청 설립 등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 또한, 한국문화원 개원식에 주빈으로 참석하여, 개원식 축사를 통해 유럽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오스트리아에 문화원이 개원되는 것을 축하하고, 문화원이 앞으로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한국과 오스트리아간 문화교류를 증진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한 총리는 금번 오스트리아 방문 계기에 5.9.(화)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로버트 플로이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을 각각 만났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북한 비핵화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 국제기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 총리는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 위한 검증을 IAEA가 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와 같은 철저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IAEA의 검증 활동에 우리 전문가·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한 총리는 IAEA가 북한 핵활동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국제 사회의 북핵문제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는 한편, 핵실험 탐지를 임무로 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CTBTO의 북한 핵문제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 이번 한덕수 총리의 오스트리아 방문은 양국 교류 개시 130주년을 기념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오스트리아와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정책에 기반하여 정치, 경제, 문화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참고) 오스트리아 약황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박영철	044-200-2136
	외교안보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황상운	044-200-2135



참고

오스트리아 약황

□ 일반사항

- 국명 : 오스트리아 공화국 (Republic of Austria)
- 수도 : 빈(Vienna, 약191만명)
- 인구 : 약890만명
- 면적 : 83,871km²(한반도의 약2/5)
- 민족 : 오스트리아계(81%), 슬라브계(4%), 독일계(3%), 터키계(2%)
- 종교 : 가톨릭(60%), 이슬람교(8%), 개신교(3%) 등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의회형태 : 양원제
- 하원 183석(임기 5년, '19.9.29 총선 결과)
- 국민당(ÖVP) 71석 / 시민당(SPÖ) 40석
- 자유당(FPO) 31석 / 녹색당 26석 / NEOs당 15석 등
- 상원 61석(임기 5년) / 단 오버외스터라이히주만 6년
- 대외정책 : 영세중립
- 주요인사
- 대통령 :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 무소속(녹색당 출신), '17.1.-)
- 총리 : 칼 네함머(Karl Nehammer, '21.12.-)
- 외교장관 :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Alexander Schallenberg, '21.12.-)

□ 경제 현황

- 주요경제지표(2022)
- GDP : 4,654억불
- 1인당 GDP : 53,660불
- 교역규모 : 4,635억불
- 수출 : 2,289억불 / 수입 : 2,346억불
- 산업구조 : 서비스업(70.7%), 제조·광업(28.0%) 등
- 경제성장률 : 4.9%
- 실업률 : 6.2%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호통상조약 체결 : 1892.6.23
- ※ 1963.5.22 대사급 외교관계 재개
- 공관장
- 주오 대사 : 함상욱 제21대 대사('22.10.-)
- 주한 대사 : 볼프강 앙거홀처 (Wolfgang Angerholzer) 제10대 대사('20.7.-)
- 교역현황 : 총 36억불(2022, 무역협회)
- 수출 : 14억불(전산기록매체, 집적회로반도체, 무선전송기 등)
- 수입 : 22억불(승용차, 가축육류, 자동차부품 등)
- 투자현황(누계, 2022.9, 신고기준)
- 對오 : 16억불(122건) / LG전자, 삼성SDI 등
- 對한 : 7.5억불(160건) / AVL List(파워크레인 및 계측기계), Steyr Motors(디젤엔진) 등
- 재외동포 수('21년) : 2,720명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1,001명
- 체류자(유학생 포함): 1,719명

□ 주요인사 상호방문

(방문)

- '02. 5 최성홍 외교장관
- '02.11 박관용 국회의장
- '04.10 **이해찬 국무총리**
- '04.11 오명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05.9)
- '06. 4 반기문 외교장관(비공식)
- '06. 9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07.9)
- '09. 5 김형오 국회의장
- '09. 8 박근혜 대통령특사
- '11.12 사공일 대통령특사(세계정책회의)
- '13. 1 이인제 대통령특사
- '14. 7 윤병세 외교부장관(경유)
- '15. 8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16.12 윤병세 외교부장관(IAEA 핵안보회의)
- '17. 7 심재권 국회 외통위원장
- '18. 5 **이낙연 국무총리(공식방문)**
- '18. 5 김현미 국토부장관
- '21. 6 **문재인 대통령(국민방문)**
- '21. 9 박병석 국회의장

(방한)

- '00.10 **쉬셀 총리(ASEM 정상회의 계기)**
- '01. 5 페레로 발드너 외교장관
- '07. 4 **피셔 대통령(국민방한)**
- '07.12 프라머 하원의장
- '11.11 발드너 외교부 국무장관
- '13. 7 기어링거 경제차관
- '14.10 루프레히터 농림장관
- '16. 9 브란트슈테터 법무장관
- '17. 9 아몬 오-한 의원친선협회장
- '18. 2 슈트라헤 부총리(평창 계기)
- '18.11 슈람빅 디지털·경제부장관
- '19. 2 **쿠르츠 총리(공식방한)**
- '22.10 샬렌베르크 외교장관
- '22.11 소보트카 하원의장

- (참고사항) 한국 역사속의 오스트리아
-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프란체스카 여사)이 오스트리아 출신
-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40여년간 소록도 병원에서 한센병 치료 봉사 / '16.5월 고흥군 명예군민, '16.6월 법무부 지정 명예국민, '17년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 선정

□ 북한과의 관계

- 1974.12.17 외교관계 수립
- 북측 오스트리아에 상주공관 유지(최강일 대사, '20.3-)
- 주한 대사 북한 검임('12.1.1.-)